

2023년 5월 29일
May 29, 2023

KUSAF and KDVA Joint Message for “U.S.-ROK Alliance Memorial Week 2023”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의 “2023 한미동맹 추모 주간” 공동메시지

Each time a service member dies in service to his or her country, it tears a hole in a family forever. A son or daughter, sister or brother, husband or wife, is lost to their loved ones.

군인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를 잃게 되어 한 가정에 영원한 상처를 남깁니다.

Some solace, though quite small, comes when that service member is remembered on occasions such as Memorial Day. Names are spoken, graves visited, memories shared. The loss is experienced all over again by those who knew the fallen, and the impact of that deceased family member or friend on the living is absorbed by younger generations who will, hopefully, continue to honor their sacrifice. At the same time, their deeds and sacrifices are honored not only by those who knew them, but by all freedom-loving people wise enough to understand that if the honored dead had not stood ready to perish, we might be living very different lives now.

현충일에 고인의 이름을 호명하고 현충원을 방문하며 추억을 공유하는 등 군 장병들을 기억하는 노력은 작은 것 같지만 큰 위로가 됩니다. 고인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들을 마음속에 되새길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은 고인의 희생을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존중하고 이어가길 희망할 것입니다. 고인들의 업적과 희생은 지인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것입니다. 고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For members of the Korea-US Alliance Foundation and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we know too well of the brave sacrifice of Korean and American military members, who came together in a common cause to defend Korea. In the seven decades since the start of the Korean War in 1950, over 130,000 ROK and 36,000 U.S. service members have been killed in action in Korea.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대한민국 방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한 한국과 미국 군인들의 용감한 희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 동안 한국군 13만여 명과 미군 3만 6천여 명이 한국에서 전사했습니다.

As the U.S.-ROK Alliance moves beyond 70 years into the future, it is even more meaningful that today marks the start of “U.S.-ROK Alliance Memorial Week” which is bookended by the U.S. Memorial Day on May 29, 2023, and the ROK Memorial Day on June 6, 2023. KDVA and KUSAF have marked this week to ask Americans and Koreans to visit Veterans’ graves in a local cemetery, attend a Memorial Day ceremony, or read an article or a chapter of a book that describes an individual tale of sacrifice while serving in Korea.

한미동맹이 70년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2023년 5월 29일 미국 현충일과 6월 6일 대한민국 현충일로 이어지는 '한미동맹 추모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은 추모 주간을 맞아 한국과 미국 국민들이 지역의 현충원을 방문하여 참전용사를 추모하거나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하고, 한국에서 복무하는 동안 희생한 장병들의 이야기나 기사를 읽어 볼 것을 당부합니다.



On ROK Memorial Day at 10:00 a.m., Koreans pause to reflect on the heroes who saved their nation. As we have done in past years, KDVA asks its members and supporters to also pause at 3:00 p.m. EDT on U.S. Memorial Day to have a moment of appreciation for U.S. Korean War Veterans and Korea Defense Veterans who died while serving in Korea. (The time of 3:00 p.m. EDT will allow this observance to occur during daytime hours across six time zones.) Your act of remembrance will keep alive the spirit of those who died fighting for freedom.

대한민국은 현충일 오전 10 시에 잠시 멈춰 서서 조국을 구한 영웅들을 추모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주한미군전우회는 회원들과 후원자들에게도 미국 현충일 오후 3 시에 잠시 멈춰 서서 한국에서 복무 중 사망한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복무장병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당부합니다. (미국 동부 하절기 시간 오후 3 시를 기준으로 6 개 시간대에 걸쳐 낮 시간대에 추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모는 자유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의 정신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해요 한미동맹!

“Together for the ROK-U.S. Alliance”

임호영

대한민국 육군대장 (예비역)

한미동맹재단 회장

Leem, Ho Young

General, ROK Army (Retired)

President, KUSAF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국 육군 대장 (예비역)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Curtis M. Scaparrotti

General, U.S. Army (Retired)

President, KDVA